

휴-口으로부터 칸트까지 因果問題의發展(續)

朴東一

二. 第二類推

칸트는範疇의區分에依하여四原則을세웠다. 이四原則中에서崔重要한原則이고 또純粹悟性의根本의原則이되는것은第三原則即『經驗類推』의原則이다. 이原則은 곧自然科學의根本原理따라서뉴-톤의物理學의基礎를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原則은現象의存在가關係하는原則인데 다시말하면現象存在의狀態를先天的으로規則에從屬식히는原則이다. 그래서第三範疇即關係範疇의圖形은時間順序임으로時間이라는概念이 다原則에있어서는꼭으나重要한役割을하는것은周知하는바이다. 그럼으로時間의此根本性質或은根本樣相은時間特續性과時間繼起性과同時存在인데 이세가지는如何한經驗에도先立하고그뿐아니라 또經驗을비로소可能케하는 것이다. 그레簡單히말하면經驗類推는時間概念을現象에適用한것에不外하는 것이다. 이中에서第二類推即時間繼起性의原則은 곧因果律의原則인데一切의變化即一切의事變과一切의生成은因果法則을從하여生起한다는原則이다. 그리하여칸트는三種의類推中에서 이第二類推의原則을가장詳細히論하고가장用力해야究한 것이다. 그럼으로칸트의因果問題를論述하는吾人은먼저이第二類推에서의칸트의證明을論窮치안을수없다.

휴-口의因果問題를論할적에도一言하엿지마는吾人은 다시여게서因果關係가어떠키해야 哲學的의問題가되는가 또因果關係가成立함에는 어떠한條件을必要로하는가를簡明히一瞥하고저칸트의所論으로進向하려한다. 只今吾人이한現象을觀察할때에는반드시此를惹起하는것이있다. 普通吾人은이惹起하는것을原因이라하고 原因에依하여惹起된것을結果라한다. 그래서이結果가原因이되야다른結果를生하고그結果는 또다른結果에對하여原因이된다. 如斯히하여原因結果의無限한連鎖는生하는 것이다. 只今말한因果關係는時間上先立하는것이原因이되고 그後에繼起하는것이結果가되는것인데 此時間的前後關係가因果關係의成立되는第一條件이다. 그러나此時間的前後關係만으로는 因果關係의成立에좀不充實하다. 即그繼起하는時間關係가偶然的의것이아니고必然的의것이아니면 안된다고思考하는데서因果關係는完全히成立한다. 이것이因果關係의成立되는第二

條件인데因果關係의本質을일우는것이다. 그럼으로原因이結果를生한다는것은到底히吾人の經驗하는바가아니다. 吾人は吾人思惟의根本的性質에依하여如許히생각치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럼으로因果關係는所與의것이아니고 吾人の思惟가構成하는것이다. 칸트는如斯히論하였는데휴-口은이因果의必然性を否定한것은上述한바이다. 此際에吾人は모름직이因果의連鎖하여 形而上學的의窮極問題即第一原因에까지遡上하여 時間的의要素를極할것이나 此는뒤로미루어둔다. 以上과가티 因果關係가成立하는데는何時나時間的前後關係와必然的連結關係가없으면아니된다. 따라서또因果關係는經驗에制約되는것이아니고 되리어經驗을置礎하는것임으로因果律은한箇의範疇인것이다.

第二類推에在한칸트의論證은因果法則의客觀的必然性的連結에있다. 即原因結果의一般的樣相에證明은轉한다. 다시말하면두現象의繼起에在한當恒性是現象의因果的結合의經驗的特徵을成하는것이나吾人は此境遇에다만一變化에就하여一原因이先天的으로先行하지안으면안되는것을洞觀한다. 即合法則性一般의根據가先天的으로洞觀되지안으면안된다. 거게서칸트는因果의法則을批判의第一版에서는『生起하는一切한規則을從하여 繼起하는무엇을前提한다』하는形式으로發表하고 同第三版에서는좀달리即『一切의變化는原因結果의結合法則을從하여生起한다』라는命題에依하여發表하였다. 勿論이두命題는同一한意味를 가진것이지만第二의言表는그特徵을매우明察케나타내었다. 此言表에서吾人は因果의原理가各各의變化에對한根據의原理에야 因果의原理는正히個個의變化에先行하는變化에의從局을表하는것이다. 그래서吾人は前節에서特殊的範疇의演繹은時間에在한客觀順序의意識을豫想하는것을大體로論하였다. 그러게발서範疇의先驗的演繹에서一般的豫示만은示하였다고생각한다. 이제吾人は칸트의所論한因果律의實際的演繹을第二類推에從하여要約하려한다. 吾人は가티의第二類推全體를續하고思考하매그의因果證明이數段에區分되여論證됨을볼수있다

前에도말한것과같이칸트는客觀성과必然性間의連絡上에因果性的證明을進하고있다. 只今現象을觀察하면그것은二重의存在를가지고있다. 即第一로現象은對象自體와가티되이는데그境遇에는現象은時間에서相互로繼起하는吾人覺知의作用으로부터區別되지안는다. 그러나第二로現象은對象때문에存在처럼되인다. 그러치마는吾人の表象은現象에만關係하고物自體에對하여는全然關係하지안는것이다. 그럼으로時間에在한客觀的順序와主觀的順序間의區別에依하여何를吾人は意味하는가에關해서吾人の問題는起來하는것이다. 換言하면家屋의多樣에對한覺知는繼起的인데多樣其物은繼起的의아니고同在的이라함에依하여吾人は何를意味하는가이다. 此에對한引例는中止하나 『레클람』本 批判第二八五-六頁을보면알수있다. 此點까지의證明은現象은表象과同一하여서表象은覺知의作

用으로부터는區別되지안는것처럼되이다. 그럼으로覺知의作用과物自體와의間에는何等中間項은없는것이다. 아무러튼칸트의意를미루어생각하면結局의問題는如何히하여야同一의表象이한가지로主觀的인것처럼되고或은客觀的인것처럼되이는가이다. 또다시더나아가서吾人은如何히하여야表象의主觀的順序로부터客觀的順序를取來할수잇는가이다. 吾人이칸트의證明進展을觀來하면칸트는一個의規則을捉來하여야客觀的으로後起事가客觀的으로早起事に繼起하여야한다는吾人の知覺을決定하는任務를주었다. 그래서如斯한規則은分明히因果必然性을伴現하는것이다. 以上の所述이말하면칸트의證明의一段이다.

그러면다음證明의段은『레클람』本批判第二八八-第二九〇頁까지다. 이證明은大體上述한것과同樣이나다만事物의連結의必然的規則에對한것을除하고主觀的繼起와客觀的繼起間的어떤可能的區別의不充分한點으로부터論證하는點에서上述과다른것이다. 그래서此證明은已上과가티吾人理解의順序는늘逆으로되는것이아니고必然的結連을包含한事實로부터의證明이다. 따라서問題인特徵이어디잇는가하면實際的의對象性中에包含되어잇다는事實에基한다느니보다는寧ろ客觀的인事物이이特徵即必然的的法則에依하는連結의可能性에基한다는공에잇다. 칸트는만일吾人の知覺이不變히連續的이면時間에在한知覺의實際的順序는主觀的과客觀的間을區別하는根據를주지안는다고強調한다. 그래만일客觀的인것의知覺이必然的的法則에依하여決定된다는것이事實이아니라면吾人の理解는다만相互繼起한다고말할뿐이요客觀的의狀態가互相繼起한다고말할수는없다. 結局엔此證明에對하여칸트는必然性가답으로經驗的演繹에依하여야는因果性의證明은不可能하다고말하였다.

今番은定立할措定の陳述를가지고證明은開展한다即吾人은必然的連結의現前없이는決코客觀的인繼起는注意할수없다는事實. 다시나아가말하면이必然的連結만이客觀的繼起의觀念을可能케한다는陳述이다何故인가하면吾人想像의如何한擴張도또吾人の主觀的의表象에對한吾人意識의正確性도일즉이必然的連結을客觀的으로하지못하였음으로써이다. 即칸트의말을引用하면『吾人은時間에在하여一定한處所에定立하지안으면안될對象을認識한다. 그런데이一定한處所란先行하는상태에依하여區別되는것이고 다른狀態에依하여는區別되지않은것이다.』라고하였다. 吾人은여게서前述한證明에서와같이時間에在한客觀的順序는必然的連結을包含하는것을아는것이다.

最後로非常히重要한證明이있다. 칸트는모든經驗的智識은雜多의綜合을想像에依하여包含한다는主張으로써始作한다. 그래서또一般的規則에從하여야可能的經驗을論證한다. 그러히이綜合에서는表象은늘繼起的이나繼起의順序는決定되어잇지안타. 因果의範疇가없이是何故로現實的事物에逆順序가없는가는綜合中에

는發見되지안는다. 그러치만만일綜合이覺知의綜合일것가트면順序는決定된다. 或은綜合이順序를有하는經驗에固定하여야 있다는方法에서決定될것이다. 詳言하면만일吾人의知覺이現實의事變에對한認識을包含하였으면그認識은經驗判斷이여야한다. 이經驗判斷에서는繼起가決定된다고吾人は생각하는것이다그러치안으면如斯한思想은想像의戲弄에不過할것이다. 그래서因果關係는모든經驗判斷의客觀的妥當성의制約이고또는經驗其物の制約이다. 故로經驗의모든對象은因果法則을從하여야만한다. 칸트自己의言을引用하자. 『如斯한命題의證明根據는全히 如下的要素에依據한다. 即언제나繼續的인想像換言하면언제나互相繼起하는表象에依한多樣雜多의綜合은一切의經驗認識에依據한다』 또 『現象의繼起中에在한因果關係의原理는그럼으로經驗의一般對象을取扱한다何故인가하면그因果原理其物이如斯한經驗의可能性的根據임으로써』 라고한데서吾人は只今の證明에對한論述을窮知할수가있다.

이證明은第二版에特히追加한證明과結合하여思考할때에一層明瞭히된다고思料한다. 그래서이附加한論證은正히第二類推의總括的論證이라고도할수있고또칸트의最終의陳述이오다시가장重要な箇所이다. 理論症의最初의命題에서칸트는現象의全變轉은다만變化일뿐이고實體의生滅은아니라고確言하였다. 例하면吾人이時間系列에在하여互相繼起하는두知覺을眞이라思料하고서結合하는데이結合은다만任意的이오且無規定的인構想力의事爲이다. 그리하여何物인가가單純한知覺에서繼起한다는것과 何物인가가客觀其物에서繼起한다고判斷한다는것과는同一하지안다. 그럼으로客觀에서連屬하는二過程의關係中에一方이면저他方이다음에定立되지안으면안된다고생각하여 吾人は이狀態를必然的으로規定되었다고생각한다. 그래서一必然的結合은客觀的規則을前提한다. 그래서變化一般의時間繼起를規定하는概念은原因結果의概念임으로써 이原因結果에從하는時間繼起의結合에依하여原因結果의連鎖는客觀的으로規定된것이라고認證된다. 따라서原因結果의概念關係는正히變化의客觀的繼起의實踐的制約이다. 故로因果法則은經驗으로부터由來되는것이아니고 反히經驗에基礎를주는 것이다. 이것이第二版時에附加한論證の大體인데 因果證明의概念은이것으로다하였다고보아도조호리라생각한다. 이附加節의最後의一句를引用하여보자. 『그러키때미다만吾人이現象의繼起따라서一切의變化를因果法則에다從屬식힘에依하여서만經驗換言하면그現象의經驗認識이可能케된다. 다시말하면即現象其物이經驗對象으로서다만因果法則에依하여서만可能케된다』

吾人は上來로數段의證明을칸트의所論에從하여구분論述하였는데 只今이全體論述의內容을要約하여보려한다. 칸트는因果原理를證明함에際하여時間에在한客觀的繼起의意識으로써出發하는데 이意識은발서先驗的演繹에서안바이다. 그

러나如何히하야吾人은그러한繼起를知得하고나아가서는一方으로繼起를單純한知覺의主觀的繼起로부터他方으로客觀的繼起로부터區別하는지가알수없다. 이區別은吾人表象의實際的順序中에는있지안다. 卽如斯한順序는늘繼起的인까닭이다. 그러나若干의順序는아무리하여도있지안으면안될것처럼생각한다. 何故인가하면主觀的繼起로부터區別되는客觀的繼起의意識은事實임으로써다. 아무러던지吾人은思惟에依하야客觀的으로繼起的인二事變 例하면A와B라하는것을主意하면그때마다吾人이A과B를知覺하는順序는逆으로할수없는것을發見한다. 卽吾人은A를B의前에知覺할뿐이고그逆은되지안는다. 그럼으로主觀的要因이包含하고있는것은무엇이던지 A와B에對한吾人の經驗은順序를가져야만한다. 只今吾人이江에沿하야浮來하는내를注目하면吾人은배를江의下流에서보기前에隄上流에서보지안으면안된다. 그리하야이逆은不可能한 것이다. 換言하면所與의條件下에서B의經驗은A의經驗에繼起하여야한다. 그러나A와B는結局A와B라하는人間의經驗으로부터相離하야잇는것이아님으로A와B는所與의條件下에서B는다만A에繼起할뿐이고그逆은不能하다는必然的法則에依하야連結되어있다고말하는것과同樣이다. 只今論證에在한다른말로한다면構想에依한結合은因果의範疇가없이는主觀的繼起를줄뿐이고客觀的繼起는주지못한다. 이因果範疇가없이는吾人은다만B가吾人の想像에서A에繼起한다고하는것을知得할뿐이고B가客觀的對象에서의A에繼起한다고하는것은知得하지못하는 것이다. 이와가티時間에在한客觀的繼起에對한吾人の知覺은第二의것이必然的으로所與의條件下에서生起하는一切의經驗에在하야는 第一의것에次하야生起한다는인과法則에依하야連結되는主觀的事變에對한知覺을包含하는 것이다. 여게서吾人の證명의概括을모른對象은必然性を包含한다는形式으로表言할수가있다. 그래서對象은아무런吾人の經驗을連結하고且決定하는必然的法則의體系를意味하는 것이다.

칸트의因果律에對한所論の大體는以上에所述과가틀줄로생각하나 다시좀더이證明을吟味하여보자. 第二類推는一言으로말하면因果律이主觀的繼起와客觀的繼起와의區別에包含되어잇는事實을뵈이려하는 것이다. 칸트는一切의認識은客觀性を包含하고客觀性は客觀的順序와主觀的順序間의區別을包含한다고말하였다. 따라서칸트는다만主觀的인것과客觀的인것과의사이에在한吾人の區別이단지心理的으로必然的連結의現前에依하야說明되는것을뵈이장놓고도리어經驗된客觀性的의概念이必然性を包含한것을뵈었다 따라서吾人은因果律과客觀性間의關係를心理的가티말고論理的가티知得하야야만한다. 卽證明된要點은吾人の單只客觀的事實을現象의必然的法則에從하야整頓하는過程에依해서理解한다는것은아니고 처음으로부터客觀的繼起가論理的으로先行하는事變과後起하는事變과의새이의必然的連結의認識이客觀性的의認識中에包含되어잇는것을뵈이는것이

고 心理的事變과가티後者에先行하지안으면안된다는것을뵈이는것은아니다. 그러케因果律의證明을客觀性에다置礎하는칸트의方法은充分히批判的이다. 여게에니르러吾人은類推는先驗的演繹을例常하고그리하여先驗的演繹은雜多의客觀的事物의衣食을豫想히하는것을보았다 이와가티吾人은모든判斷은客觀的事物을包含하고따라서一切의客觀的事物은또必然성을包含한것을아는 것이다. 거게서칸트는모든經驗的認識은對象에의推理를包含하고그리하여對象은다만必然的으로連結된體系처럼承認될뿐이라고말하였다. 따라서一切變化의過程에在한種種相異한階段間의必然的連結은칸트에對하여야는因果律과同一的의것이다. 即自然的物理的對象의存在는무엇이던지다相異한性質或은狀態間의必然的連結임으로 時間에在하여變化하는如何한事物에對해서던지이必然的連結은明白히因果律을包含하지아니하면안된다. 그러코보니칸트는先驗的演繹에서全經驗的知識은對象에서認識된體系的統一을豫想하고 그리하여體系는分明히必然的連結으로부터이必然的連結의意味에서의因果律의意味를包含한다고말한줄로思料한다.

於是乎吾人은칸트의見地를思想의相違하는휴-口的見地와對照하는것으로써此節을結末하려한다. 휴-口은分析에依하여作俑하는理性은二箇의各別한事變과가튼原因結果間의連結을알어낼수가없다. 그리고또經驗은必然성은주지못함으로因果律을論證하는原理가아니라고생각하였다. 그런데칸트는特殊의經驗은嚴密히必然的인原理證明의基礎를形成할수없고 또理性은分析에依하여는原因結果間의如何한連結도發見하수없는것이나 그러나證明에의他道가開展되어있는것을論證함에依하여此見解를制하였다. 그러면 所謂證明에의他道란무엇인가 그것은即經驗에基礎를주는것임은勿論이고 나아가칸트는휴-口的方法에對하여證明에의普遍必然的方法을發見하여드되여窮境을脫한道이다. 그래서普遍的因果律의原理는特殊한經驗으로부터의歸納에依해서는推理가되지안는다. 그러나一切의吾人の經驗中에包含되어있는것은必然的이라고許容하지안으면아니된다. 왜그러냐하면이必然성이없이는吾人이知覺하는經驗은있을수없음으로써다. 생각컨대吾人은그原理를信하든지或은全혀아무것도信하지안튼지가아니면안된다는것을뵈이는것보다도더굳세인證明은없는것이다. 이것이正히因果律의境遇에結果한證明의一典型 〕여서因果律을承認치안코는時間에在한모든事物에關한認識도判斷도不可能하다. 따라서因果律은時間에在한一切事變의普遍的妥當原理다. 結局證明이經驗的의다는것은反對될運命에어찌할수없이處하게된다. 그러라고하여도또如何한先天的證明이라할거라도全然經驗的內容을缺할수는없다. 만일缺한다면吾人의使用하는모든概念은칸트의말한空虛한概念이되고말것이다. 故로吾人の全經驗中에주어진特性이되고말것이다. 故로吾人の全經驗中에주어진特性이選擇된때에는 또이特性은因果성을包含한다는것이發見된때에는因果

律은多幸히先天的으로證明되었다고할수있다.

칸트는휴-口의因果連結이늘綜合的이라는論證을許容하고또特別한原因結果間의連結에의洞觀을가진다는것도許容하였다. 그러치마는因果律의一般的法則을證明하라고한데서칸트는휴-口과相違하는것이다. 이것은上來으論述에서充分히窺知할수있다. 그러나여기에서다시一言하야分明히하라고한다. 그래후-口은一般的證明은不可能하다고하였다. 그런데칸트는證明없이는因果律을생각하랴가없고 또因果律의眞理性은經驗의歸納에依하야되일수는없다고생각하고드되여因果律은經驗에制約되는것이아니고經驗을置礎하는것을一般的으로說明하였다. 그러케하야實際로第二類推에서준因果證明을보면特殊한因果系列을全因果系列로부터分離할수있는것을證明하는것을吾人は안다. 即吾人は다만因果的體系에從屬하는吾人の經驗中事變의決定的系列一一히獨立分離식힘에依하야客觀的自然的繼起를認識하는데至하는것임으로因果的體系는物理的世界를形成하고그리하야不適切한主觀的要因을採用하지안케되는것이다. 客觀的事物에對한全經驗은特別한事物에對한經驗이다. 그래吾人は特別한事物을吾人經驗의全體의系列이다. 그러케하야 또經驗의各部分의分離는正히特殊한因果系列의더욱넓은範圍에在한事變의全系列로부터의分離다. 따라서이分離의可能性은對象에對한全認識의豫想이다. 依하야칸트의證明은一切의經驗은必然的法則을따른繼起라고하는것이다. 그럼으로吾人は全關係全變化를一切의經驗과思惟의基礎的原理로認識하지안으면안되는데이르는것이다. 於是乎모든繼起는必然的이라는明白한事實은非常히重要な不可缺할것이여서吾人は아무래도拒否할수없는普遍的眞理다. 以上에서粗略하나마因果律의一般的原理에對한칸트의證明은論述되었다고생각한다. 이것으로도余의論하는因果問題의發展은大體說明되었다고생각하나칸트의因果律에對해서는좀더나아가서第一原因과自由에關係함으로 다음에는이問題를簡說하라고생각하는바이다.